

### 13. 췌장의 고형성 유두상 상피종의 세침 흡인 소견

- 1 례 보고 -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Solid and Papillary Epithelial Neoplasm of the Pancreas

- A case report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한지영, 박영년, 이광길

췌장의 고형성 유두상 상피종은 젊은 여자에게 호발하는 드문 질환으로서 저등급의 악성종양이다. 이 종양은 세포학적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췌장의 체도 세포종과 매우 유사한 소견을 보이나, 광학 현미경 소견상 진성 유두상 배열을 보이는 점이 체도 세포종과의 감별점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세침 흡인 세포검사로서 진단된 췌장의 고형성 유두상 상피종 1 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31 세 여자로서 약 7개월간의 심와부 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당시 심와부 뭉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였고 진찰소견상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심와부에 압통이 있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3cm의 종괴가 췌장의 두부에서 관찰되었다. 종괴에서 세침흡인 검사를 시행하여 췌장의 고형성 유두상 상피종으로 진단하여서 Whipples 수술을 시행하였다.

세침흡인 도말 검사상, 혈액성 배경을 보이고 있었고 세포들의 밀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유두상 배열 혹은 군집을 이루거나 개개로 산재하여 분포하였다. 유두상 배열을 보이는 구조의 가운데에는 얇은 섬유 혈관성 간질조직이 있었고 주변부로 종양 세포들이 밀집하여 중층 배열을 보이고 있었다. 종양 세포들은 난원형의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청성의 중등도 세포질을 가지고 있었고 세포간 경계는 명확하였다. 때때로 세포질내에 공포가 관찰되었다. 난원형의 핵은 세포질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염색질은 균질하게 분포하였으며 때로 하나 혹은 두개의 작은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육안 소견상, 약 3cm 크기의 주변과 경계가 잘지는 다엽성의 원형종괴가 췌장의 두부에 위치하였으며 종괴의 단면은 황회색으로 고형성이고 부분적으로 출혈소견이 있었다. 광학현미경 소견상, 종양과 주변 췌장 실질과의 경계는 좋았으나 부분적으로 침윤하는 부위가 있었다. 종양 세포들은 섬유성 격막에 의해서 나뉘는 불규칙한 판상구조를 취하거나 진성유두상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세포의 모양은 난원형으로서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작은 핵소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세포들은 chromogran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음성반응을 보였다.